

# 코로나 내수 진작...혁신도시 기관들 6조 펀다

### 기재부 지침에 한전 등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50~70% 복지포인트 미리 쓰고 인력 추가...선결제·선구매 추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내수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이 올 상반기 안에 6조원대 예산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모든 공공부문에 내린 '내수 보완방안'의 하나로 재정 조기 집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 등 800여 개 기관은 '2020년도 재정 집행지침'에 따라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분기마다 집행 실적을 기재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상반기 공공부문 소비·투자 3조3000억원, 내수 창출 규모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는 방침

도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계약특례를 완화 적용해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높이고 의무 선금률은 10% 상향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예년보다 높게 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본예산에 대한 올 상반기 집행목표를 전체의 57%에 달하는 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자본예산은 설비 자산에 대한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전의 올해 총 예산은 지난해(72조7399억)보다 4.6% 줄어든 69조7893억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간 예산집행 계획 중 상반기에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집행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상반기로 조정된 사업과 공정을 적기에 이행해 경기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그룹사 한전KDN은 연간 조기집행 대상금액 5948억원 가운데 43%에 달하는 2559억원을 상반기에 쓸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 한전KDN의 예산 집행실적은 전체의 22.9%인 1360억원에 달한다.

올해 4조원대 예산을 굴리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상반기까지 대상사업비의 6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가 올 1분기 집행한 예산은 8678억원으로, 연간 예산의 절반 가까이(41.6%) 차지한다. 이는 1분기 목표치(8332억)와 비교하면 104%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사가 집중적으로 돈을 쓴 부분은 농지 지원·경영희생·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 사업과 영농철 대비 안전영농, 재해대비 분야 등이다.

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에 지난해보다 1800억원 증가된 1조1500원을 사업비로 세웠고 농업재해 예방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부서 전문 인력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조기집행에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2월 말 열린 '2020년 4차 이사회'에서 올해 손익·자본 및 자금예산 1조1002억원 가운데 58%에 달하는 638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aT는 각종 박람회와 수출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사업비 조기집행을 독려한 결과 전체 예산액(1900억) 대비 48.3%의 집행률을 올 1분기에 기록했다. 진흥원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비투자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며 "행사·회의·용품·물품구매 등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98.36 (-16.17)	↑ 금리 (국고채 3년)	1.013 (+0.007)
↑ 코스닥	637.82 (+3.03)	↑ 환율 (USD)	1220.50 (+2.60)

## 좌초 위기 '광주형 일자리' 동참 호소

### 광주시 상인연합회 성명

광주시 상인연합회(회장 손중호)가 노동계의 '광주형 일자리'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는 145만 광주시민의 열망과 광주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다시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광주형 일자리

의 혁신모델이 좌절될 경우, 광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걱정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추진되어야 한다"며 "노동계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가 걸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중기부, K유니콘 국민심사단 200명 모집

### 다음달 1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K유니콘 기업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심사단은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함께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인 '아기 유니콘 200'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사업 대상을 뽑는 과정에 참여한다.

자격 요건은 창업·벤처 및 기술·경영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유경험자이며, 모

집 규모는 200명여이다.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을 넘길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추후 활동 시 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K유니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한편 '아기유니콘 200'은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유망 스타트업 40곳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올해 상반기 15개사 정도를 뽑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싱싱한 납치도 커피처럼 '드라이브 스루'로 만나요"

### 수협 전남본부 24~27일

오는 24~27일 나흘 동안 매일 광주에서 전남지역 양식수산물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판매 행사가 열린다.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산구 삼무대로변(신촌동 682-29번지 일원)에서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생산한 납치 1kg을 40% 할인한 가격인 1만5000원에 살 수 있다. 수량은 매일 100개씩 총 400개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튤립처럼 활짝~ 웃어요"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1층 광장에 마련된 신안 튤립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신안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튤립 화분 300개를 구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포토존을 운영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한우값 상승에 광주·전남 소 사육 53만마리 '역대 최대'

### 통계청 1분기 가축동향조사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통계를 집계한 1983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4.2%(2만1500마리) 늘어난 53만 3163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사육 마릿수는 316만2100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이는 한·육우 사육 마릿수를 집계한 1983년 이래 최고로 높은 수치다. 사육 증가는 한우 가격이 오르면서 번식수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우 가격은 2018년 12월~2019년 2월 수컷 기준 600kg당 551만4000원이었지만 2019년 12월~2020년 2월에는 600kg당 562만6000원으로 올랐다.

학교 급식 연기로 타격을 맞은 광주·전남지역 낙농가는 지난해보다 10가구 줄어든 459가구를 기록했지만 젖소 사육 마릿

수는 400마리(1.3%) 증가한 3만1110마리를 나타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직격탄을 맞았던 돼지의 경우 사육 마릿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광주·전남지역 돼지 마릿수는 119만90마리로, 지난해보다 7만8000마리(7.0%) 늘었다. 전국 마릿수는 1120만 8000마리로, 지난해보다 0.1%(9000마리)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코로나19로 기업 신규 채용 3분의 2 취소

### 인크루트 채용 동향 조사 결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3분의 2가량 취소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262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채용계획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무려 84.9%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나 됐고, '다소 그렇다'도 40.4%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0.6%, '전혀 그렇지 않다'는 4.5%에 그쳤다.

올해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뽑을 것인지 질문한 결과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채용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은 60.7%였지만, '코

나 이후에도 채용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1.1%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채용계획을 밝힌 기업은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37.0%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21.0%, 중소기업 18.5% 순이었다.

올해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코로나19 이전에는 8.7%였지만, 발발 이후에는 19.4%로 두배가 넘게 늘었다. 채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기업도 7%에서 25.6%로 급증했다. 응답 기업의 71.1%는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신입사원 모집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9월 이후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으며 대기업 32곳, 중견기업 71곳, 중소기업 159곳이 응답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